대행 스님 '한마음' 가르침 동국대 교양과목으로 개설

'현대인의 삶과 마음공부' 1학기 일반교양과목으로 시행

이론 · 실천 분야로 나누어
과학 · 철학 · 심리학 · 문학 등
전문가 · 스님이 강의 진행
〈한마음요전〉 강의 교재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양과목이 동국대에서 올해 새 학기에 개설된다.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수(한마음과학원 연구위원)는 "한마음과학원에서는 불교를 현대화해 현대인의 삶에 널리 이익이 되게 하라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초 · 중등학생, 학부모, 아버지,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왔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마음과학원은 대학인성연구팀을 구성해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1학기부터 동국대 일반교양과목으로 '현대인의 삶과 마음공부'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인의 삶과 마음공부'는 16주 과정의 2학점 교양과목으로 이론과 실천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8주 동안에 △현대과학과 불교 △문학과 마음의 치유 △철학 · 심리학과 마음공부 △마음공부와 글로벌 예절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보는 마음공부 등을 주제로 현대학문과 불교의 관련성을 강의해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공부가 중요함을 이해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마음선원 혜찬 스님,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황수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진복선 성균관대 초빙교수 등 여러 분야의 전공자가 팀티칭에 참여한다.

9~16주 동안에는 전반부 강좌를 통해 얻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실습해 실제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 스님들이 직접 참여해 팀티칭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할 방침이다.

교재는 대행 스님이 구도를 하며 몸소 실천을 보였던 내용들을 발췌 · 정리한 〈한마음요전〉을 채택했다. 김 교수는 "한마음요전에는 현대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대학생들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매우 적합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갖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대행 스님은 자신의 존재바탕이 불성임을 믿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며 "이러한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 대학생들은 손상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해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불성에 맡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직관적으로 솟아올라 이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는 체험들을 하고 있다.

이번 강좌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지켜보기 △믿고 맡기기 △실천궁행하기 △참구하기 네 가지 단계로 모듈화해 실습할 계획이다.

김영래 교수는 "대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타율적으로 강요된 학교생활 속에 자라나며 본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회 통념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속수무책으로 지배당하는 신세가 된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습득하고 마음의 힘을 길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평생 수행 매진한 '절구통 수좌'

조계종 제11~12대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 행장

봉암사 결사 마지막 산증인
해방 전 고불총림 결사 참여
묵묵히 수행에만 전념한 스님
후학에게 큰 경책으로 다가와



법전 대종사의 법명은 법전(法傳), 법호는 도림(道林)이다. 1925년 음력 12월 8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에서 김해 김씨 시중공파(侍中公派) 원중 청신사와 경주최씨 호정 청신녀의 삼남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했고 1938년 14세 때 장성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했다.

1941년 17세 때 영광 불갑사에서 은사 설제(雪醍)스님 · 계사 설호(雪浩)스님으로 수계득도했으며, 백양사 강원에서 수학한 후, 해방 전 만암(曼庵)스님의 고불총림 결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1948년 24세 때 문경 봉암사 결사를 통해 성철 스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참선공부의 길로 들어섰고, 성철스님은 1951년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도림(道林)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1956년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득력(得力)한 뒤, 1957년 33세의 나이에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후 제방 수행처의 정진대중들은 법전 스님에게 '절구통 수좌'라는 별호를 붙여 줬다. 1969년 45세 때 퇴락한 김천 수도암으로 거처를 옮겨 가람중수와 선원 복원을 통해 많은 납자들을 제접했으며, 또 2006년 팔공산에 도림사를 창건하여 대가람으로 일궜다.

'절구통 수좌'가 별호로 불릴 정도 철저한 수행을 했던 법전 스님에게 높은 수행력을 보여주는 일화도 적지 않다.

대승사 묘적암에서 정진 시절 법전 스님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방에 냉기만 가시는 정도 불을 넣고 이불도 베게도 없이 수행에만 열중했다. 하루는 아래 운필암의 비구니 스님들이 올라와 스님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5되짜리 커다란 차관에다가 가득 담아서 가져왔다.

한 사발을 맛있게 먹고난 뒤 나머지를 방 위쪽 구석의 삼각탁자 위에다가 뒀다. 겨울이기도 하고 방에 불을 적게 넣어 상할 걱정은 하지 않았다. 운필암 비구니 스님들이 내려하고 다시 법전 스님은 좌복 위에 앉았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순두부를 넣은 차관이 눈에 들어와 먹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차관 속 순두부는 곰팡이가 새까맣게 나버렸다. 한겨울 냉기가 가득찬 방 안에서 보관된 순두부에 곰팡이가 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법전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했던 것이다.

법전 스님이 해인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7년 해인총림이 설치되면서 부터다. 1969년 유나(維那)소임을 맡아 초기 총림의 법도를 세웠으며, 1984년 해인총림 수좌(首座)로 천거된 이후 주지, 부방장을 거쳐 1996년부터 현재까지 방장(方丈)으로서 영일(寧日)이 없었다. 가람수호와 총림대중의 화합을 통해 수행가풍 진작에 진력한 선승(禪僧)으로써 108배와 화두참선을 삶의 지남(指南)으로 삼았다. 2002년 조계종 11대 종정, 2007년 12대 종정으로 추대돼, 10년간의 대임(大任)을 원만하게 회향했다.

2003년 〈백천간두에서 한걸음 더〉라는 법문집을 통해 간화선을 두루 선양했으며, 2009년 자서전 〈누구없는가〉를 출간해 스님의 진솔한 삶과 수행흔적을 세인들에게 보여줬다.

마지막까지 가야산 해인사의 방장으로, 선승으로서 삶을 살았던 법전 스님은 12월 23일 오전11시 25분, 대구 도림사 무심당에서 법랍 73년 세수 90세로 입적했다.

법전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 경상 서랍에는 '설사 바다가 마른다고 해도 그 바닥을 볼 수 있건만(海枯終見底)/ 사람들은 죽도록 그 마음바닥을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人死不知心)' 라는 게송을 남겨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전 대종사 연보

1925년 전라남도 함평군 출생
1938년 14세 장성 백양사 청류암 입산
1941년 17세 영광 불갑사에서 설호스님을 계사로, 설제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
1947년 23세 백양사 강원 대교과정을 마침. 백양사 고불총림 동참
1948년 24세 백양사에서 만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및 보살계 수지함
1948년~1950년 24~26세 경북 문경군 봉암사에서 시작한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여 은법사 성철 스님을 만나 하안거와 동안거 정진. 봉암사 결사 해체 후 경남 고성 문수암에서 하안거 중 6.25 전쟁을 맞음.
1951년~1954년 27~30세 통영 안정사 천제굴에서 성철스님을 시봉하면서 하안거와 동안거, 그리고 범어사에서 안거를 남. 성철 스님에게 '도림' 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1955년 31세 대구 파계사 성전암을 수리하고 성철 스님을 모심. 문경 원적사와 상주 갑장사에서 안거.
1956년 32세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서 동안거에 들어 홀로 정진함.
1957년 33세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정진하면서 파계사 성전암의 스승 성철 스님에게 인가를 받음
1958년 34세 태백산 홍제사에서 하안거와 동안거 정진
1969년 45세 해인총림 유나역임
1969년~1984년 45~60세 김천 수도암에 주석하면서 가람 중수와 선원을 복원함.
1981년 57세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장 역임
1982년 58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1986년~1993년 62~69세 해인사 주지를 역임
1993년~1996년 72세 해인총림 부방장 역임
1996년 72세 해인총림 7대 방장으로 취임
2000년 76세 10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역임
2002년~2007년 78~83세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종정 역임
2007년~2012년 83~88세 대한불교조계종 제12대 종정 역임
2009년 자서전 '누구없는가' 출간
2014년 12월23일 해인사 퇴설당에 머물며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시적하시었다.

청암사 학인 스님들 '힙합 염불' 음원 출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지난해 7월 17일 개최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에서 신선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자신들의 '힙합 염불'을 음원으로 출시했다.

청암사승가대학 29기 학인스님 13명은 졸업을 앞두고 염불시연대회에서 선보인 '신반야심경'을 '아제아제바라아제' 라는 싱글 CD음반으로 출시키로 했다. 반야심경의 내용을 새롭게 구상한 이번 앨범의 Part 1에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Part 2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곡 '아제아제바라아제 #1 위로'는 구랍 22일 공개됐으며 '아제아제바라아제 #2 희망' 음원은 오는 1월 15일경 공개되며 정식 CD음반은 1월말 경 출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노인복지 거목 각현 스님 원적

구랍 25일 법납 46세, 세수 71세… 29일 영결식



불교노인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해 왔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사진〉이 구랍 25일 오전 5시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에서 입적했다. 법랍 46세, 세수 71세. 분향소는 안성 파라밀병원에 차려졌으며, 12월 29일 영결식을 가졌다.

각현 스님은 24살이 되던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8년 청계사 주지로 재직 당시 스님은 돌연 홍콩 유학길에 올랐다. 중국어 공부를 위해 홍콩 중문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를 마칠 때쯤 스님에게 남은 것은 중국어가 아니라 '복지' 였다. 홍콩 사찰 대부분이 복지시설과 함께 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교' 였다.

귀국한 각현 스님은 1984년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전문 지식을 쌓았다. 이후 성수 스님이 설립한 연꽃마을에 1990년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불교노인복지 불사를 진행한다.

연꽃마을 20주년이던 2010년 산하시설은 69개로 늘었으며 종사자 숫자도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양 · 한방병원인 파라밀요양병원을 비롯해 의료복지시설도 전국 6개 지역에 산재돼 있다.

각현 스님은 1986년 법주사 부주지, 조계종 9, 10, 11대 중앙종회 의원, 청주불교방송 사장, 법보신문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연꽃마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2008년 불교인권상, 제23회 불이상을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佛紀 2559年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 주	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성명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불국로 38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